

1표 얻으려 악천후 속 목숨 건 비행

■ 유치 확정까지 뒷얘기

스페인·佛, 모로코 노골적 지지에 한국 강력 항의

아프리카 국가 '양다리 걸치기'에 표 계산 혼선도

여수는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기까지 에피소드들도 적지 않았다. 정부와 제례는 1표를 얻기 위해 악천후에서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타기도 했고 치밀한 득표 계산 속에서 밸롭 외교를 벌였다.

또 일부 국가는 지지를 약속하고도 입장을 변경하거나 우리나라와 경쟁국에 모두 지지 입장 전달하는 '양다리 걸치기' 수법을 보이는 등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맹혹한 현실도 실감해야 했다.

◇스페인, 프랑스의 모로코 대리전=이번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당초 예상과 다르게 모로코와 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이유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측면 지지 때문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각각 프랑스어권, 스페인어권 국가들을 상대로 모로코를 대신해 유치활동에 나설 정도로 노골적인 지지를 했다.

우리나라는 모로코를 대신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리 유치전의 증거를 잡고 세계박람회기구(BIE)

사무국에 공식 항의를 했으나 사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목숨 걸고 유치 교섭=유치단은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모로코가 아프리카 및 중동을, 폴란드가 유럽을 각각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해 후보국들의 지역 연고가 없는 중미 지역을 초반부터 공략해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주 도미니카의 인便民 대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5개국을 5번씩, 모두 25차례나 방문했고 아이티를 방문할 때는 기상악화와 비행기 고장 등으로 목숨을 건 유치 활동을 펼쳤다.

◇안면비주기·양다리 걸치기=외교적인 수사를 겉으로는 우리나라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막판에 가서 안면을 바꿨거나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 일부 소국의 경우, 우리와 경쟁국 모두에 대해 지지입장을 전달해 내부적으로 표 계산시 혼선을 야기했다.

◇BIE 대표들, 파리대사관 직원들에 '선물'=자성이며 감전'이라고 했던가. 주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이 BIE 대표들에게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 이에 감동(?)한 BIE 대표들 가운데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나라 BIE 대표는 대사관 직원에게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꽃병으로 쓸 수 있는 도자기를 선물했고 포도주나 재즈디스크, 초콜릿 등 작은 선물들을 건네기도 했다.

/파리=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일보 1997년 5월 엑스포 첫 의제화

여수는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확정되기까지는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의 10여년에 걸친 노력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거의 없던 시절 전남 유치의 타당성과 개최 효과를 입증하고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과 현지 취재 등으로 열기 조성에 기여한 것이다.

광주일보는 지난 1997년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5회에 걸쳐 '해양엑스포 전남에서' 시리즈(시진)를 연재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주제로 한 지역 최초의 장기 연재물로, 엑스포를 전남 발전을 위한 지역의제(議題)로 설정(agenda-setting)하기 위한 것이었다.

'21세기 신해양시대'가 화두였던 당시는 전남 도가 '전남해양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2010

년 해양 엑스포 유치에 막 시동을 걸던 시점이었다.

연재는 ▲세계박람회란 ▲유치 필요성 ▲추진 어떻게 ▲사례 분석(대전, 포르투갈 리스본, 일본 아이치현) ▲주제 선정 ▲유치대책기구 ▲개최 효과 ▲해양수산자원 활용 ▲파제 등으로 나눠 엑스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2012 여수 엑스포 주제로 책택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도 이 연재의 핵심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당시는 여천시와 신안군, 완도군 등 도내 10여개 시·군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파열점까진 나타나는 바람에 이의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광주일보는 이 연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10여 차례 이상 장·단기 기획물로 여수 엑스포 개최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국가 차원의 외교 노력



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유치 활동을 응원했다. 이어 국내·외 다른 언론사들로 적극적인 취재 보도로 유치 붐 조성을 이바지했다.

/정호경기자 who@kwangju.co.kr

여수박람회 이건철씨가 첫 구상

〈현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여수세계박람회는 1996년 당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이던 이건철(시진) 현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실장이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당시 전남도 해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본 오키나와 해양엑스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세계박람회가 해양자원이 풍부한 전남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엑



실장, 이개호 전남도 기획관(현 행정자치부 공무원노사협력관), 안원래씨 등이 일본으로 출장, 오사카·오키나와 해양엑스포 사업계획서 등을 입수해 이를 토대로 기본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전남도는 지난 1996년 9월 4일 정부에 '2010 세계박람회' 전남 유치를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1997년 5월 31일 엑스포 전남 유치를 공식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盧대통령 '정상외교'도 한 몇

실사단 방문때 하루 두 차례 이례적 만남

노무현 대통령의 독려와 '정상외교'

교류로 실사단을 두 차례

정상외교 활동을 통해 여수엑스포 유

치를 위한 선봉장 역할을 맡아 왔다.

노 대통령은 4월 11일 세계박람

회기구(BIE)의 여수 현지 실사 때는

'상례'를 어겨며 우리 정부의 확고

한 엑스포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국제박

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두 차례 만나 한국 정부가 여수엑스포 개최를 얼마나 열망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청와대로 실사단을 초청해 다과회를 연예

어 오후에는 직접 여수에 내려와 여수 신항에서 열린 선상 만찬을 주

재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이 아닌 외빈을 하루 두 차례나 만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2월 3일

"무료청강" 매주월요일 주간 야간 국비무료

교용보험 가입 근로자 교육비 환급

40년 전통 광주고시학원 본원 첨단점 ☎ 227-8003 ☎ 971-0002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광주에서 공인중개사만 강의하는 학원은 오직 새롭고 정교한 학원뿐! 시험대비는 전문학원에서 하십시오.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재능방송 한국경제TV·부동산TV 출연 강사진!

개강 12월 3일 시작반 (주, 야) 현재 강의중 (매일 무료청강 환경)

처음 시작하신 분을 위한 기초이론강좌 연회원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 전국 최대 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입니다 (교육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경영하는 학원 1위 ● 선배학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고 정교한 학원입니다

내 총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영빌딩 북구점 ☎ 529-8111 개업점 구시청거리(충동동) 대안일보 옆 청송빌딩 6층

=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겨울방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곧 새로운 기회!!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현대교원임용 고교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작강)

개강 1월 10일 (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작강)

개강 1월 6일 (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작강)

개강 1월 7일 (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작강)

개강 1월 5일 (토) 10:00~18:00

리리 류호강 교수(작강)

개강 1월 6일 (일) 10:00~17:00

과학교육론 류호강 교수(작강)

개강 1월 5일 (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합격실평회 =

매주 -(화, 목) 오후 6시~(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 062)222-6790

= '08년 국가·지방직 합격 대비는 지금부터 좋습니다 =

7급 9급 공무원 특강

= 강좌 안내 =

행정학 세무학 관세학 사법학 경찰학 교육학 보호학 소방학 전산학 특수학

④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저희로웠습니다 ④

개강 : 12월 1일 주·야 (한파) 반 모집 (정 수 중)

= 46년 전통의 '無等', 강의第一! 학격最多란 말을 들고 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 222-4560

광주동부경찰서 뒤 (중원초교 후문)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급 9급 공무원 개강 12월 3일

개설과목: 행정학, 고용정책학, 세무학, 법률학, 경찰학, 사회복지학, 군事情, 고정학, 소방학, 농업학, 도축학, 건축학, 전산학, 보건학, 기술학

공무원 이론반 2주(100~150시간) = 2주(100~150시간)

공무원 문제풀이 '제국의 3장식' (연중무휴)

세무직 단과반 (개별 학습)

기술직 단과반 (개별 학습)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so.co.kr

전남지회 회장: 김기현 전화: 052-202-0252